

3월 29일 교훈

##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핵심 구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말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교훈이 시온에서 나오며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이사야 2:3**

**선별된 성경 구절:**

**이사야 2:2-4**

온 인류의 복은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다주는 복된 결과를 경험할 기회를 결코 박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이를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맹세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일을 행하였고 네 아들 곧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크게 복주리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16-18

본문은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국을 말하며, 그 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시온 산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통치 중심지로 인정받았습니다. 신약은 이를 상징적인 영적 시온과 대비시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된 자들로 묘사되며, 이는 이사야의 시온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22-24). 사도 베드로 또한 시온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살아 있는 돌로 묘사하며, 그리스도를 모퉁잇돌로 삼아 시온에 세워진 영적 성전으로 건축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구약의 시온을 신약의 교회와 연결합니다. 베드로전서 2:4-6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4; 누가복음 4:43). 그분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초대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23).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지 불과 몇

년 만에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민족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 이는 특히 시온 계급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드러났으며, 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 말은 믿을 만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임이라." 디모데후서 2:11,12

이 복음은 이제 이천 년 동안 전파되어 왔으나 시온 계급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높고 대다수에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선언하셨습니다(마태복음 22:14). 따라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본기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6:10

요한의 환상에서 나온 이 말씀으로 본문을 마칩니다: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과 바다와 나무 위에 바람을 불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더라. 또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오는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외쳤다. ...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에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라. 나는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었는데, 144,000이었다.”  
요한계시록 7:1-4